

할머니! 하늘나라에서는 부정맥으로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안 선 미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난다. 각자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친구들과 MT를 가기로 계획을 짜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다. 나 역시 과외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MT를 갈 날 만 기다리며 돈을 모으던 어느날. 우리과 동기 한명이 다단계 업체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멋모르게 모두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 빚이 늘어 몇 백이 넘는다고 했다. 지금이야 몇 백 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당시 내가 다니던 대학의 학비가 83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 때 그 돈은 대학생인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상의를 하고 MT가려고 조금씩 모은 돈을 그 친구들 돕는데 쓰기로 결정했다. 친구는 우리들의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기에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줄을 잘 알기에. 그 돈을 친구의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고는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동기 그 누구도 그 때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했던 그 시기.

밤을 세워 3일을 놀아도 더 놀 수 있었던 그 시기.

우리들이 MT를 못 가게 된 걸 가슴아파하던 그때 과대표를 맡고 있던 한 친구가 우리에게 솔직한 제안을 했다.

“얘들아, 실은 우리 할아버지 택이 포항 구룡포거든. 할아버지 집 가까이 해수욕장도 있고 집은 허름하지만 몇 명씩 나누어서 자면 우리과 동기들 다 같이 잘 수는 있을 거야. 혹시 거기라도 갈볼까?”

우리는 친구의 그 말에 너무 신이 났다. 돈 때문에 못 갈 줄 알았던 MT를 정말 가게 되다니.....

우리들은 너무 신나서 대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6시간, 다시 포항에서 1시간 반. 또 시골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길을 걸러서 50분이나 걸려 친구의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 되어버렸지만 너무 행복했다.

멀리 해수욕장의 바닷 내음이 느껴지고 동백나무가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시골집.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바닷가와 친구 할아버지 댁에서 미친 듯이 놀고, 노래 부르고, 물장구 치면서 놀고 아쉬움에 짐을 챙겨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들의 식사를 챙기시는 친구의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 부엌으로 가서 도와 드려려고 하는 순간 부엌 나는 ‘아!’하고 소리를 질렀고 부엌 한 구석을 보고는 정말 심장이 뒹 만큼 놀랐다.

친구의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며 쓰러져 사지를 벌벌 떨고 계셨다. 난 너무 놀라서 할머니를 안고는 친구들을 불렀고 친구들은 119로 신고해 할머니는 큰 병원으로 옮기셨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혹시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고 늦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보니 할머니가 부정맥이 있으셔서 쓰러지셨단 말에 ‘부정맥’이란 병이 엄청 무섭고 꼭 누군가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하는 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할머니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 즈음.

각자 교사발령을 받고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나는 오랫동안 우연히 동기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내 남편은 그때 할아버지 댁으로 MT를 제안했던 그 과대표였고 그러다보니 그때 쓰러지셨던 그 할머니는 나의 시할머니가 되셨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포항에서 가까운 대구에 살다보니 할머니를 매주 케이하며 신혼을 보냈다.

할머니는 ‘부정맥’관리를 위해 꾸준한 약물치료를 하고 계셨고, 건강유지를 위해 몸무게도 5킬로 정도 빼시고 채소 위주의 식사로 식단 관리를 도와 드렸다.

시간이 날 때면 할머니를 위해 최대한 자주 찾아뵙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 날짜는 꼭 맞추어 검진을 받으셨으며, 혹시라도 호흡 곤란이나 구토,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까봐 집안에 CCTV를 설치해 할머니의 건강을 체크했다. 혈압계를 사드리고 매일매일 하루 네 번 다섯 번째 측정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었을 시기. 할머니의 연세가 75세 정도 되었을 때 병원 정기 검진을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맥박이 정상인의 범위보다 느린 ‘서맥’이라고 판정하시면서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아! 이제까지 잘 관리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인공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한다니……

주말에 가족들이 모였고 할머니의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 수술’에 대해 여러 명이 의견을 내고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다. 실은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작은집 식구들 모두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수술’에 대해 반대했다. 이유는 할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시고 70대 중반이신데 수술을 받으시다가 혹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건 할머니에게 못할 짓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가족회의를 마치고 난 후 남편과 나는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수술’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과연 75세 노인이 하시기에 무리가 있는 수술인지. 마취는 어떻게 몇 시간이나 해야하고 얼마나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야 하는 지 등

그런데 그렇게 ‘부정맥’에 대해 공부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면서 느낀 점은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수술’이 엄청 위험하고 무서운 수술도 아니고, 70대 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도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솔직히 그때 할머니의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수술’ 보다 더 어려운 건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이 우리 할머니에게 지금 꼭 필요한 수술이라는 것을 시어른들이나 작은집 식구들에게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만약 수술을 받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너희 부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와 남편에게 비수처럼 꽂혔지만 할머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수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수술을 강행하였다.

지금도 생각이 난다. 수술을 하고 나오시면서 남편과 내손을 꼭 잡으시고

“손부야, 고맙데이. 내가 니들 덕에 이런 수술도 받아보고…… 내가 이런 수술도 했는데 그냥 못 죽는다. 걱정마레이. 내 오래 오래 살끼다. 진짜로 고맙데이”하고는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 가족 같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리부부도 따라 울었던 기억이 난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실은 얼마 전에도 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부모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서맥’이셔서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하라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전화를 했길래 나는 “꼭 지금 바로 수술해드려. 고민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수술은 아니더라고요” 하고 위로를 했다.

실제로 우리 할머니는 70대 중반에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하셨지만 수술 결과가 좋으셔서 수술 후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사셨다. 90세가 훨씬 넘으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도 20년은 더 사신 셈이다.

나는 ‘부정맥’이라는 병을 가진 가족을 케어해 본 사람으로서 부정맥이라는 병은 가족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환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는 병이지 고질적이며 무서운 병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11♥11 하트 리듬의 날’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부정맥을 앓다가 인공 심장 박동기 수술도 하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11♥11 하트 리듬의 날’ 함께하며 혈압도 측정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렸을 텐데.....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부부에게 심장박동기 수술을 해줘서 이렇게 할머니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꼬깃꼬깃한 손수건에 여러 번 쌓아두신 가락지를 건네주시던 할머니.

지금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부정맥 같은 병으로 아파지 마시고 꼭 행복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할머니 저 아직도 그 반지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